

단추와 단추구멍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구애리나·이 순 흥

目 次	
논문개요	Ⅲ. 단추와 단추구멍의 형태와 종류
Ⅰ. 서 론	1. 단추의 형태
Ⅱ. 단추와 단추구멍의 기원 및 변천	2. 단추의 종류
1. 고대	3. 단추구멍의 형태와 종류
2. 중세	Ⅳ. 복식에 있어 단추와 단추구멍의 역할
3. 근세	Ⅴ. 결론
4. 근대	참고문헌

Ⅰ. 서 론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미의식에 대한 욕구는 많은 예술분야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특히 복식은 인류의 문화유산 가운데서도 인간의 미적욕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분야로 인류의 문화가 어떤 단계를 거쳐 변화·발달하였는지를 밝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적 산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식사를 연구하는 한 방법으로 의복을 더욱 실용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단추와 단추구멍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단추와 단추구멍은 의복의 착용에 있어 인간의 체형때문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트임을 처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복의 미적효과를 높이는 장식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의복 구성의 중요한 부속품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단추와 단추구멍의 변천과정과 복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범위는 고대에서 근대까지로 하고, 내용은 서양 복식사에 나타나는 각시대의 단추와 단추구멍에 대해 알아보고 단추와 단추구멍의 종류를 분류해보고, 복식에서의 단추와 단추구멍이 갖는 실용적·장식적·상징적인 역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복식사에서 단추와 단추구멍의 위치를 재정립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자료를 통한 조사연구로 실물을 직접 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Ⅱ. 단추와 단추구멍의 기원과 변천

단추는 옷을 여미거나 푸는데 편하게 하기 위한 기능적인 목적과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 의 총칭¹⁾으로 의복의 트임을 막아주고 동시에 장식적 역할도 하는 다양한 형태의 작은 조각들이다.

본래 한 쪽에는 수단추를 달고 한 쪽에는 암단추나 단추구멍을 뚫어서 함께 의복을 고정 시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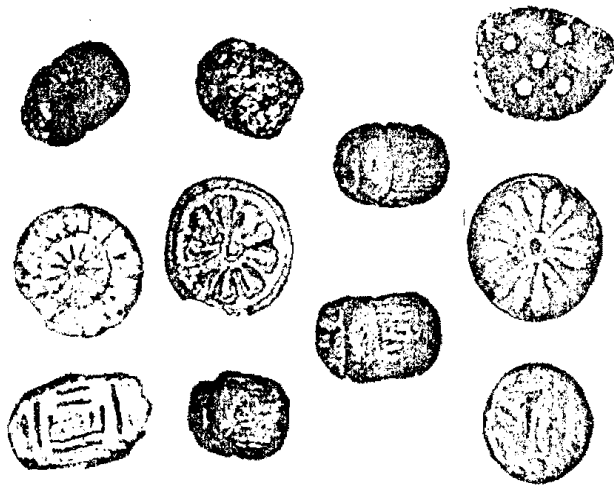
1)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9권, (서울:동아출판사, 1980), p.392.

것으로 재료도 다양하며, 크기나 모양도 다양해서 의복을 고정시키는 실용적인 역할 뿐 아니라 장식적인 효과도 크다.

“button”의 어원에 대한 정설은 없고, 고대 라틴어인 “bottare”나 고대 프랑스의 “bouton”에서 유래한다고 하며, 원뜻은 “bud”로서 새싹이나 봉오리를 뜻한다.²⁾

단추의 기원은 동서를 막론하고 역사 시대 이전부터라 할 수 있고³⁾ 가장 오래된 단추는 초기 철기 시대의 것으로 재료는 뼈나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구멍이 뚫린 둥근 원반모양으로 1865년 Danish peat bog에서 발견되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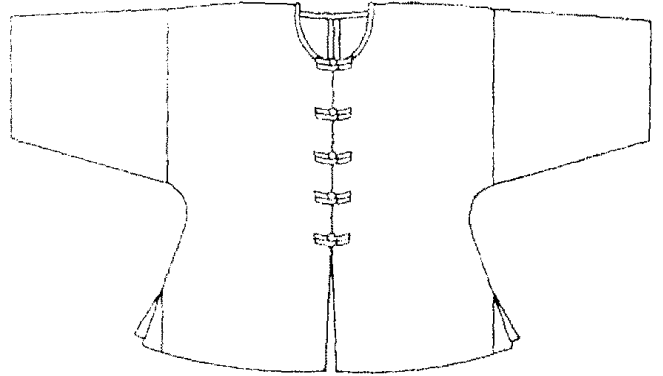
이집트에서는 B.C 2500년 경의 단추가 발견되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4000년 전의 단추모양의 gold disk가 발견되었다.⁵⁾ 그러나 이 시대의 단추는 장식적인 용도나 상징을 표현하는 것으로 형태와 디자인이 매우 단순하다.(그림1)



〈그림1〉 선사시대의 단추 (피복문화협회편, 「복장대백과사전」 p.334)

중국에서는 6조 시대(5~7세기) 청령두(청玲頭: 잠자리 머리모양)라 부르는 짜거나 매듭하여

만든 견고한 것을 짜서 만든 루프에 끼워 사용하였다.⁶⁾ 또 중국에서는 의복에 5개의 단추를 다는 습성이 있는데 이것은 5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⁷⁾ (그림2)



〈그림2〉 청령두 단추 (피복문화협회편, 「복장대백과사전」, p.333)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페르시아 등은 의복의 형태가 튜닉형으로 장방형의 천을 둘러서 입었는데, 이때 핀이나 브로취·피블라 등으로 어깨나 앞에서 고정시키거나 두자락을 묶어서 고정시켰다. 유럽에서 단추의 사용이 의복을 고정시키는 실용적인 용도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3세기 이후의 일로, 13세기 이후 의복의 입체적 구성이 시도되면서 의복을 고정시키는 용도로 단추가 쓰이게 되었다. 또 십자군 원정의 영향으로 동양의 청령옥이 유입되면서⁸⁾ 단추의 사용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단추구멍은 단추를 꿰기 위하여 실로 감치거나 천을 대고 처리한 구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⁹⁾ 유럽에서 처음으로 단추를 사용한 13세기 경에는 루프에 의해 고정시켰고, 14세기에 이르러 사람들은 레이스의 작은 틈새로 단추가 뚫고 나갈 수 있다

2) 피복문화협회편, 「복장대백과사전」 下권, (동경:문화출판국, 소화 54년), p.333

3) 「학원세계대백과사전」 5권, (서울:학원출판공사), p.392.

4) Vernar Moulon, “Button” Encyclopedia Americana Vol.2.(Americana, 1975), p.77.

5) The World Book Encyclopedia, V.2 (Field Enterprises Educational Coration, 1970), p.630.

6) 피복문화협회편, 전계서, p.333.

7) 「학원세계대백과사전」, 전계서, p.391.

8) 大小籠, 「복식사전」 (동경:문화출판국, 소화 54), p.81.

9) 「동아원색대백과선」 9권, 전계서, p.296.

는 것을 발견한 뒤 이때부터 단추구멍이 생기게 되었다.¹⁰⁾

현대는 단추구멍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이렇듯 단추와 단추구멍은 의복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화와 발달을 해왔다. 시대에 따른 단추와 단추구멍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 대

일반역사에서 고대라고 불리우는 시대는 B.C 3000년경부터 A.D 400년까지의 긴 시대를 말한다.¹¹⁾

고대의 최초 문명지인 이집트는 아열대성의 온난한 기후조건으로 인간에게 개방적인 복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복의 형태가 튜닉형으로 한장의 천을 둘러 입고 핀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벨트로 고정시켰다.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한 서아시아의 의복 역시 이집트의 형태와 별로 다를 것이 없지만 간혹 단추를 사용한 예가 보인다. 앗시리아인의 기본적인 의복은 튜닉으로 목둘레가 둥글게 파여져 있지 않고 가로로 일직선의 트임이 있으며 몇개의 단추로 어깨에서 잠그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¹²⁾ (그림3)



<그림3> 앗시리아인의 기본복식 (Carl Kohler, A History of Costum, p.70)



<그림4> 말위에 탄 페르시아인 (Art Treasure of the World, p.73)

(그림4)에 보이는 말을 타고 있는 페르시아인은 앞트임에 단추가 달린 튜닉을 바지 속에 넣어서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스인은 서양문화의 발달에 크게 공헌한 민족으로 자연스런 육체미를 숭상하여 의복에서도 자연스런 복식미를 추구하였다. 그리스의 복식은 옷감을 재단이나 바느질을 하지 않고 육체의 곡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빚어내는 드레이프의 미와 주름에 의해 리듬과 율동감을 창조해냈다.¹³⁾ 이때 옷감을 몸에 걸쳐서 어깨부위에서 피블라로 고정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의복인 도릭키톤은 양 어깨에서 피블라로 고정시켰고 이오닉키톤은 어깨에서 팔꿈치나 팔목까지 단추나 피블라 등으로 고정시키거나 때로는 실로 꿰매기도 했다.¹⁴⁾

로마의 복식은 그리스·에트루리아·아시아·북유럽의 게르만족 등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했다. (그림5)는 A.D 1세기경 게르마니쿠스의 아내 아그리피나의 좌상으로 도릭디자인의 장식인 허리선까지 내려오는 접힘 부분과 많은 단추로 고정하는 이오니아식을 결합시킨 스톨라를 입고 있다.

이와같이 고대의 단추는 의복을 고정시키는 실용적인 쓰임보다는 장식적인 용도의 쓰임이 더 많았다.

10) Compton's Encyclopedia and Fact-Index Vol.2. (P.E.Compton company, 1975), p.397.

11) 「도해서양복식사」 (서울:유신문화사), p.7.

12) 이정옥, 「서양복식사」 (서울:학문사, 1981), p.56.

13) 신상옥, 「서양복식사」 (서울:수학사, 1989), p.37.

14)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Micropedia Vol.2.(Encyclopedia Britannica, Inc, 1980). p.409.



〈그림5〉 아그리피나의 좌상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p.113)

2. 중 세

중세는 서로마가 멸망한 5세기(A.D. 476)부터 동로마가 멸망한 15세기 중엽까지의 약 1000년간을 말하며, 고대와 근세를 연결하는 중간적 시기로 근세 유럽문화의 밑바탕이라 할 수 있다.

1) 비잔틴 시대

비잔틴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동양과 서양의 접촉지로서 상업·공업·군사상의 요지였을 뿐 아니라 지중해나 흑해를 잇는 요충지로서 당시의 유럽과 아시아의 중심지였다.

비잔틴 제국의 복식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절대적인 종교적 분위기가 잘 나타나있어 신체의 노출은 피하고 색채에 의해 화려함을 표현했다.

그러나 단추의 사용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의복을 고정시키는 것으로 피블라·핀·브로취 등이 사용되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커다란 브로취의 사용이 특징인데 정교하게 세공되고 보석으로 장식되어서 왕과 귀족들간에 널리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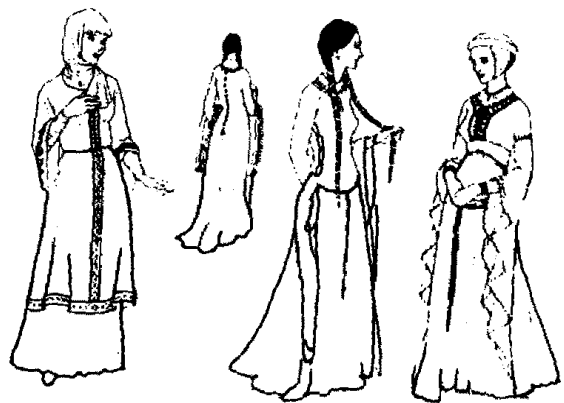
2) 로마네스크 시대

서유럽 제국은 10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오랜 암흑시대를 지나 안정과 번영을 얻게 되었다. 당시의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것은 십자군 전쟁으로 11세기 부터 2세기에 걸쳐 행해진 종교전쟁이다.¹⁵⁾

십자군 전쟁이 가져온 정신적, 물질적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그리이스, 로마양식을 바탕으로 한 비잔틴 양식이 전개되어 교회와 수도원 중심으로 새로운 로마네스크 예술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시대의 의복은 전체적으로 험령한 의복형에서 몸에 맞는 형으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림6〉 튜닉위에 입은 블리오 (정홍숙, 「복식문화사」, p.108)

(그림6)에 보이는 블리오는 튜닉위에 착용했고 윗몸이 꼭 끼고 소매가 길고 소매끝이 넓으며 스커

15) 정홍숙, 「복식문화사」 (서울:교문사, 1989), p.104.

트부분은 길고 넓어서 잔주름이 생기는 의복으로 목둘레는 장식선이 대부분 둘러져있고 뒷중심선이 나 옆에서 단추나 끈으로 여미게 되어있다.¹⁶⁾

이 시대의 단추 사용은 헐렁한 튜닉형의 의복을 신체에 맞게 조이거나 입고 벗기에 편하도록 하기 위한 트임의 처리에서 간혹 쓰이고 있는 것이 보인다.

3) 고딕 시대

십자군의 동방원정은 중세말 이후의 서구 문화에 대단한 영향을 주었다. 의복에 있어서도 십자군 원정에 의해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의복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슬람 문화와의 접촉은 이들의 앞 트임식과 단추사용이나 솜을 두고 누비는 방법등이 도입되어 중세 유럽의 상의에 획기적인 발전을 초래하는 합리적인 재단법이 설립되었다.¹⁷⁾



<그림7> 쉬르꼬를 입은 남자 (Milli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p.165)

(그림7)은 좁은 소매의 튜닉 위에 소매없는 쉬르꼬를 입은 모습으로 쉬르꼬의 앞트임에 단추가 달려있다.

13세기는 옷의 재단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법이 창안되어 서양의복의 입체적 구성방법이 시도되면서 과거의 헐렁한 튜닉과 같은 트기 방식으로는 입고 벗기가 불편하므로 과거에는 없었던 단추를 달거나 끈으로 조여서 여미는 방법이 고안되었다.¹⁸⁾ 따라서 13세기 이후 단추의 사용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장식품으로 달기도 했다.

14세기의 단추의 쓰임은 몸에 꼭 맞는 옷으로 인하여 그 실용성이 두드러졌고 반면에 소매나 조끼에 수십개의 단추를 달아 장식적인 목적으로도 사용 되었다. 지노티오가 그린 “그리스도의 강가(降袂)”에서 이 시대의 유행하던 스타일을 볼 수 있는데 매우 파진 넥크라인과 수십개의 단추가 달린 타이트한 소매, 엉덩이에 둘러진 띠와 같은 것이다.(그림8)



<그림8> 그리스도의 강가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p.192)

Robert Attelath의 초상화를 보면 클락(Clock)의 오른쪽 어깨에 4개의 단추로 여며지고 튜닉은 앞중심에서 2개씩 짝지워진 단추로 고정되어 있다.(그림9)

16) 이정옥, 전계서, p.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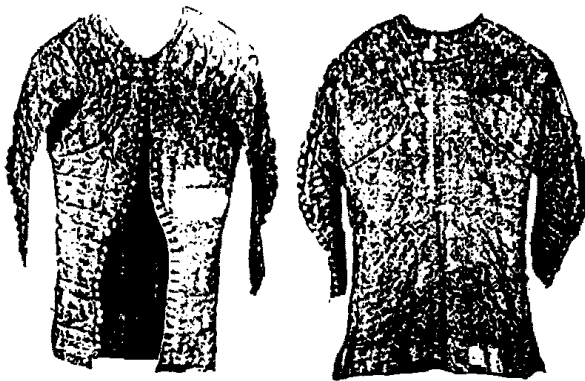
17) 丹野郎, 田原二郎, 「서양복식사」 (일본: 의생활연구회, 1982), p.84.

18) 신상옥, 전계서, p.78.



〈그림9〉 Robert Attelath의 초상 (Milli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p.214)

14세기에는 갑옷도 복식의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금속으로 만든 갑옷으로 인한 신체의 보호를 위해 브르브웁이나 주퐁이 유행하였다.(그림10)의 브르



〈그림10〉 샤를르의 브르브웁 (Francois Boucher, 2000 years of Fashion, p.197)

브웁은 수십개의 단추가 앞중심과 소매에 달려있고 일자단추구멍의 모습도 보인다. 일자단추구멍은 동양에서 들어온 것으로 뛰어난 기능성으로 인해 널리 적용 되었다.¹⁹⁾

또한 여성복의 장식적인 겹옷인 쉬르코 뚜베르 (surcot-ouvert)에는 진동을 모피로 장식하거나 앞중심에 보석이 박힌 장식단추를 달기도 하였다.

고딕 시대의 단추 사용은 뛰어난 기능성으로 인해 의복에 많이 사용되었고 장식품으로써 달기도 했다.

3. 근 세

복식 역사상 근세는 프랑스혁명 전까지로 16세기의 르네상스시대와 17세기의 바로크시대, 18세기의 로코코시대로 구분된다.

이 시대의 복장에는 특징적이고 다양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코르셋의 사용으로 거대하게 부풀어진 스커트나 밀착시킨 상체, 슬레쉬, 리본, 루프단추 등의 다양한 장식품들이 있다.

1) 르네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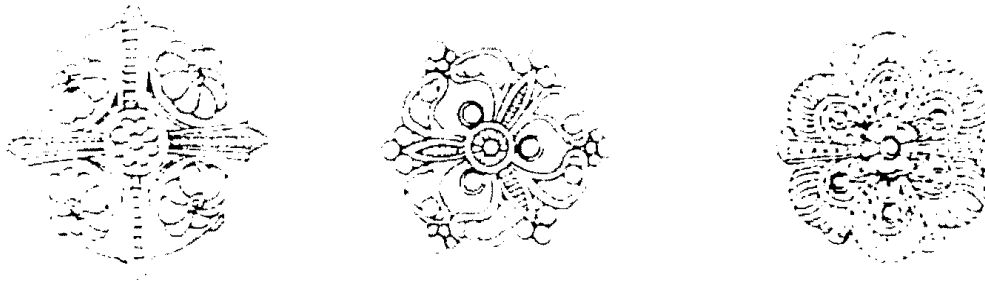
르네상스시대는 서유럽이 근대화하는 단서로 역사상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십자군원정의 실패로 교회의 권위가 약화되자 사람들은 신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중시하게 되었다.

이 시대의 의상은 과장된 실루엣 뿐아니라 화려한 장식으로 복식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 외형의 엄격한 위엄과 전체적인 조화미는 르네상스 복식의 특징이다.

16세기의 단추는 중세의 종교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예술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금이나 은의 세공이 단추에 이용되었고 비단을 씨우는 것이 유행하였다. 또 남녀모두가 즐겨 사용하였고 다이아몬드같은 보석을 금과 함께 단추에 사용하여 왕이나 귀족들의 특권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디자인에 있어서도 매우 정교하고 세련되어서 금으로된 형태에 6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것이나, 꽃모양의 것, 포도와 과일을 묘사한 것도 찾아볼 수 있다.(그림11)

19) 정홍숙, 전계서, p.122.



<그림11> 르네상스 시대의 단추 (윤은미외 2인, 「단추에 대한소고」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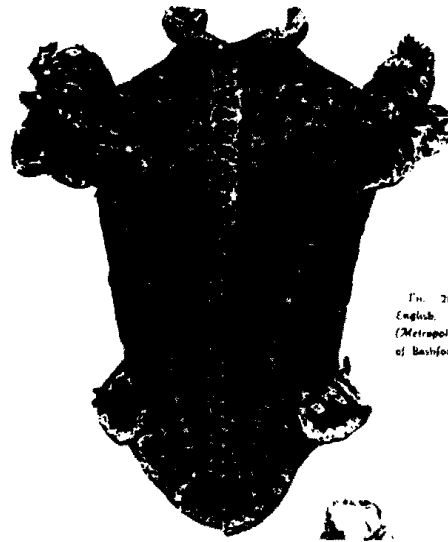
<그림12> 알렉산드로 알베르티와 그의 시종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p.279)

(그림12)는 소년시종을 데리고 있는 알렉산드로 알베르티의 초상화로 길고 통이 좁은 가운을 입고 있고, 중심에는 작은 단추가 촘촘히 달려있고 왼쪽에는 단추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독일의 황제 맥씨·밀리언이 1550년경에 착용한 검정 벨벳 브르브웁에는 가장 좋은 스페인제 황금 단추가 큰것이 29개 작은것이 54개나 달려있다. (그림13)

포르투갈의 여왕 캐서린의 초상화를 보면 양옆에 금단추가 장식된 로브를 입고 있는데 앞중심에도 금단추와 고리의 모습이 보인다.(그림14)

이 시대에 단추는 상체를 조이는데 펍 효과적이어서 브르브웁등의 남성복식에 많이 사용되어졌



<그림13> 검정 벨벳 브르브웁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p.266)



<그림14> 캐서린의 초상 (Francots Boucher, 20000 yeare of Fashion, p.225)

고, 그중 화려한 보석단추는 장식적인 아름다움도 더해 주었다.

단추의 재료도 다이아몬드·루비·진주·금·은·놋쇠·철·빨·삐·유리·형질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또 이때 부터 오른쪽에다 단추를 다는 것이 남성복 구성상 요긴한 것이 되었고 더욱 예술적인 세련성을 띄우면서 발전했다. 그러나 여자복에서는 체형을 조여야하는 필요성으로 고리나 끈을 대신 사용했다.²⁰⁾

2) 바로크 시대

17세기는 르네상스에서 로코코시대로 이어지는 과도기로서 정치적으로는 군왕주도의 절대주의와 사상적으로는 기독교 사상의 지배에서 벗어나 계몽주의의 시대이다.

바로크 의상의 특징은 과장되고 복잡하고 감각적으로 르네상스 복식이 항상 조화를 깨뜨리지 않았던 것에 비해 바로크풍은 각 부분의 장식들이 전체 조화와는 관계없이 복식 그 자체를 위한 나열로 호화로움만을 강조하여 리본·레이스·루프·단추 등이 장식품으로 쓰였다.²¹⁾

루이13세 시대의 단추는 남녀 모두가 장식용으로 사용했고 루이 14세 때에는 단추가 남성전용으로 보석을 사용하여 그 가치는 무게에 의해 결정되었다.

1686년 루이14세의 장식단추는 60만 달러나 되었으며, 그가 6살때 입은 옷에는 31개의 루비단추가 달려 있다.²²⁾ 또 그 당시에는 손수건에도 보석단추가 있어 상속인을 정한 예도 있었다.²³⁾

17세기에 특기할만한 사실은 이 시대부터 유리가 단추의 재료로 등장했다는 사실인데 이는 Fore Hott가 그린 초상화에 파란 유리받침에 은이 얹혀진 단추가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²⁴⁾

17세기는 단추가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는데 (그림15)는 매우 희귀한 형태의 피스코스-벨리 두브레와 케니온즈와 어울리는 트렁크 호오즈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브레에는 41개의 단추로 여미게 되어있다.



<그림15> 제임스 I 세가 대관식때 착용한 복식 (Blanch payne, History of Costcme, p.328)

(그림16)에 보이는 바지는 옆선이 모두 단추로 잠그게 되어 있고 잠그지 않은 부분으로 속에 입은 의복이 보인다.



<그림16> 프랑스의 남자복식 (James Laver, Costume of Fashion, p.104.)

(그림17)의 망 또는 팔을 덮고 있는 부분의 등판과 앞몸판을 연결한 단추를 풀면 떼어낼 수 있으며

20) 이정옥, 전계서, p.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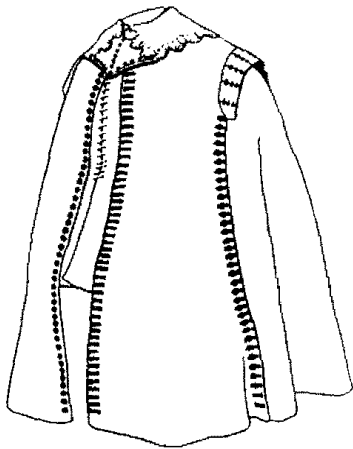
21) 정홍숙, 전계서, p.164.

22) Comptons Encyclopedia and Fact-Index Vol.2. op.cit. p.387.

23) 피복문화협회편, 전계서, p.316.

24) Britannica Junior Encyclopedia, Vol.3. (Encyclopedia Britannica, 1989), p.410.

소매가 있는 겹옷의 형태로 만들려면 전체의 단추를 채워주면 된다.



<그림17> 망포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p.336)

(그림18)의 토마스 아이샴의 결혼예복은 소매통이 넓고 커프스가 넓은 것이 특징이고 장식적인 역할을 겸한 단추가 앞중심과 호주머니에 달려있다.



<그림18> 결혼예복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p.349)

3) 로코코 시대

프랑스의 루이 14세 사후로 부터 프랑스 혁명 전까지를 로코코 시대라 부르며 로코코의 건축양식은 실내장식에 중점을 두어 건물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므로 복식도 이런 영향에 따라 직선보다는 곡선의 우아하고 섬세한 미를 추구하였다.

또 18세기 중기에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은 사회질서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직물생산을 위한 새로운 기계의 발명과 인도와 미국으로부터의 직물수입은 의복재료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18세기의 단추산업은 더욱 활발해져서 조잡한 형질단추를 대신해서 금속이나 상아단추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비싼 놋쇠단추는 시민들이나 귀족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다.²⁵⁾

18세기 중엽 강철로 만든 단추를 James Watt의 동업자이고 영국의 제조업자인 Matthew Boulton 이 생산했다.²⁶⁾

또 도금단추나 단추에 유명인사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유행이었고 단추는 코우트나 바지등 트임이 있는 곳에 달았는데 값진 단추를 달아서 그 당시의 사치스러운 공예기술을 자랑하였다.²⁷⁾

단추의 디자인도 다양해서 칠보나 금은으로 장식하거나 소설이나 드라마의 장면을 유리에 세공하기도 하였다. 단추의 크기는 지름이 약 1~2cm의 작은 것에서 6~7cm의 큰것도 있었다.²⁸⁾

이 시대는 단추만이 사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보석등으로 만든 매우 값진 단추를 달았는데 단추의 값이 의상값보다 더 비싼것도 있었다.

1770년대 이후에는 Coat의 단추가 유난히 커지고 단추의 재료에 있어서도 금·은·금속류·조개·보석 등으로 형태와 크기에 변화를 주어 장식적인 효과를 크게 내었다. 은, 금실을 꼬아서 단추구멍 가장자리를 장식했던 17세기의 몰(mol)은 18세기 중기에 없어지면서 남자의 장식성이 전보다 감소되었다.

몰대신 단추구멍을 곱게 아플리케하여 단추구멍

25)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op.cit, p.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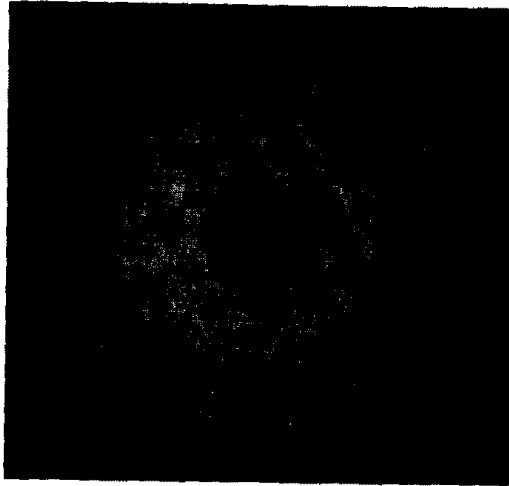
26) Ibid, p.410.

27) The World Book Encyclopedia, op, cit, p.630.

28) 정용숙, 전계서, p.211.

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림19)는 진주조개, 금속조각, 놋쇠, 다이아몬드로 만든 18세기 프랑스의 보석단추이다.



<그림19> 보석단추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p.410)

(그림20)의 르댕꼬뜨는 단추가 두줄로 달려있고 아랫단은 사선으로 잘려있으며 소매부리는 넓적하게 밖으로 접혀서 cuffs모양을 이루고 단추로 채우게 되어있다.



<그림20> 르댕꼬뜨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p.401)

바지에서도 트임을 앞중심에서 단추로 여미던 것을 영국의 영향을 받아 단추덮개를 디자인해 놓았다. 단추덮개는 앞트임을 가리고 허리근처 한쪽에서 2~3개의 단추로 채워 훨씬 기능적이다.²⁹⁾

(그림21)의 의상은 빈약함이 특징으로 단추들은 장식적인것 같다.



<그림21> 젊은 남자의 모습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p.400)

(그림22)의 풍자만화에 그려진 코우트의 단추는 이 시대의 단추가 과장되어 그려져 있다.

18세기에 들어서는 여자복에도 단추의 등장이 많아졌으며 근세의 단추사용은 기능적인 용도로서 뿐 아니라 장식품으로서도 많이 이용되었으며, 착용자의 지위나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도로도 이용 되었다.

29) 정홍숙, 전계서, p.217.



〈그림22〉 코우트 (신상옥, 「서양복식사」, p.137)

4. 근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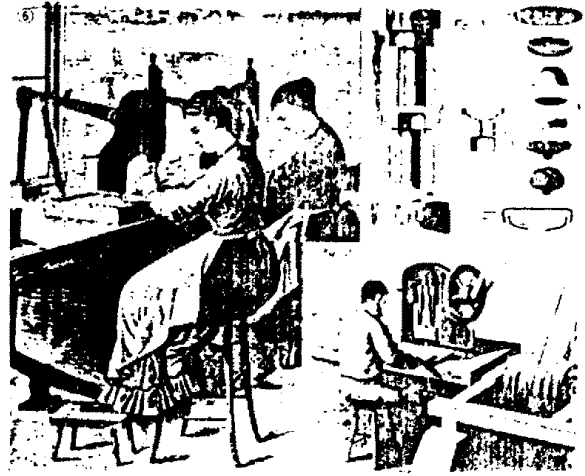
서양복식사에서 19세기는 근대사회의 발생과 발전의 시기이며 시민적인 복식 문화가 자리잡아가는 서곡으로서 대단히 흥미있는 시대이다.³⁰⁾

18세기말 프랑스혁명으로 귀족과 시민간의 구별은 사라지고 평등을 외치게 되었다. 따라서 복식문화에 있어서도 기능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복식이 유행되기 시작했으며 남성복보다는 여성복에 더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세기초 처음으로 단추가 기계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여태까지의 가내 수공업 형태의 단추 산업이 기계화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단추의 보급이 더욱 성행하게 되었으며 일반대중도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23

19세기 초에 이르러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금속 단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철로 만든 단추도 등장했고 늦쇠에 도금한 단추와 금단추가 인기가 있었다. 1807년 영국의 Birmingham에서 B.Sanders가 금속단추를 발명했고, Canvas shank를 창안해 내었다.³¹⁾

1830년에는 천짜개 단추가 등장했고 유리와 세라



〈그림23〉 19세기 초기의 단추공장 (피복문화협회편, 「복장대백과 사전」, p.334)

믹, 도기에 그림을 그린 단추 등이 생산되었다. 또 1890년 미국의 John. F. Boepple에 의해 진주조개를 대신하는 섬조개로 만든 단추가 제조되었으며, 식물성 상아단추는 corozo열매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림24〉 남성복식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p.454)

30) 정홍숙, 전제서, p.226.

31)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op, cit, p.410.

19세기에는 셀룰로이드나 유리밀에 그림을 넣은 단추가 유행하기도 했다.³²⁾

부인복에도 18세기에 비해 많은 단추가 사용되어 졌으며 거의 모든 복식에 단추가 쓰였다. (그림24)는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로 너무 작게 재단이 되어 단추를 잠글 수가 없다.

1859년에 들어서 색코트가 등장하였는데 오늘날의 남성복에 한층 가까와 졌다. (그림25)에 보이는 코트는 박스형이며 소매통이 넓어졌고 단추의 위치도 높아져 새로운 패션을 보이고 있다.



〈그림25〉 색코트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p.462)

1880년대 이후 남성복에서 코트는 다시 보편적인 앞여밈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공식적인 테일코트는 단추를 높이 달도록 디자인되어 전통적으로 달아온 한개의 단추대신에 세개의 단추를 달게되었다.³³⁾

또한 단추는 의복에서 뿐 아니라 구두 등에도 사용되어 실용적인 단추가 달린 구두가 유행되었다.

19세기초 여성의 복식은 고전적인 스타일이 유행 되었고 초기의 그리이스퐁 가운에는 짧은 소매가 달렸는데 때로는 set-in 소매도 있었지만, 대개는 장식주름과 단추로서 이오닉키톤의 소매를 흉내내 었다(그림26)



〈그림26〉 그리이스퐁의 의상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p.482)

(그림27)은 여성의 르덴코프로 단순한 앞여밈의 단추가 보이고 어깨와 손목에 단추로 장식된 모습



〈그림27〉 르덴코프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p.479)

32)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op,cit, p.410.

33)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N.Y. Harper and Row, 1970) p.462.

이 보인다.

근대의 단추 사용은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으로 더욱 널리 보급되었고 2차세계대전 이후 장식적인 역할보다는 기능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또 19세기말 합성수지의 개발로 더욱 다양한 재료의 단추가 제조되었다.

Ⅲ. 단추와 단추구멍의 형태와 종류

1. 단추의 형태

단추의 형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주위환경에서 디자인을 창안해 낼 수 있으며, 앞의 모양과 뒷모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단추의 앞 형태



<그림28> 단추의 앞모양 (피복문화협회편, 「복장대백과사전」, p.333)

- (1) 볼·버튼(Ball Buttons): 구슬모양의 단추 (그림28-①)
- (2) 돔·버튼(Dome buttons): 반원형 단추 (그림28-②)
- (3) 플랫·버튼(Flat Buttons): 납작단추 (그림28-③)
- (4) 천구형 단추: 약간 둥글면서 납작한 단추 (그림28-④)
- (5) 휴지·버튼(Huge Buttons): 큰 단추
- (6) 휘·홀·버튼(Four Hole Buttons): 네구멍 단추 (그림28-⑤)
- (7) 배럴·버튼(Barrel Buttons): 술방울 모양의 단추
- (8) 에이콘·버튼(Acorn Buttons): 도토리모양의 단추

이외에도 단추의 앞 형태는 동물, 식물 등의 디자인에 따라 수없이 많다.

2) 단추의 뒷 형태

단추의 뒷 형태는 구멍에 의해 고정되는 것과 뒷쪽에 생크(shank)가 부착되어 고정시키는 형태가 있다.

shank는 의복에 단추를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단추에 부가된 조각을 말한다. 고리축(loop shank)이 가장 보편적 형태로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³⁴⁾

(1) 고리생크(loop shank)

대부분의 단추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철사생크(wire shank)라고도 부른다. 생크의 형태는 단추의 뒷면에 양끝이 끼워질 수 있도록 철사를 구부려서 만든다.(그림29-①)



① 고리생크



② 원추형생크

③ 거트고리생크

<그림29> 생크의 종류 (Primrose peacock, Discovering old Button p.69)

(2) 원추형 생크(cone shank)

동과 아연으로 만든 합금단추에서 흔히 발견되며 원추형을 닮은 두 끝이 단추음판에 끼워져 금속으로 만들어진 고리를 형성한다. 주로 18, 19세기에 사용되었다.(그림29-②)

(3) 거트고리생크(gut loop shank)

이 생크의 형태는 gut나 노끈을 교차시켜 만든 것으로 나무나 뼈로 된 뒷 부분을 가진 금속 도금 단추에 사용되었다.(그림29-③)

(4) 알파타입생크(alpha type shank)

한 조각으로 된 단추에 고리축을 부착시킨 형태로 철사 고리축은 뒷면에서 뻗는다.(그림30-①)

34) Primrose peacock, Discovering old Button, shire publication Ltd, 1978, p.69.



① 알파타입생크



② 오메가형태생크



③ 샌더스생크



④ 캔바스생크

<그림30> 생크의 종류 (Primrose, Discovering old Buttons, p.69)

(5) 오메가형태생크(omega type shank)

생크의 형태가 omega와 비슷하다고 해서 따온 것으로 이 형태는 1800년초 기계에 의해 만들어졌다.(그림30-②)

(6) 샌더스타입생크(sanders-type shank)

윗 부분은 두꺼운 강철다이(die) 속에 넣고 높은 압력을 가하여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아랫부분의 다이(die)는 안에 넣어 압력을 가하여서 플레이트 안에서 압력에 의해 shank를 고정시키는 것이다.(그림30-③)

(7) 캔바스생크(canvas sh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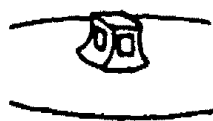
1807년 단추 제조업자이며 발명가인 B.Sanders가 만든 것으로 거친 canvas가 단추 뒷면에 대어 있어 바늘이 어떤 방향으로도 통과할 수 있다.(그림 30-④)

(8) 핀헤드생크(Pinhead shank)

핀같은 철사가 단추에 구멍을 내고 철사 끝은 단추 몸체에 구부러져 고리생크 형태를 이루며, 상단부는 보통 pin과 비슷하거나 pin디자인을 갖고 있다.(그림31-①)



① 핀헤드생크



② 박스생크



③ 장미꽃생크

<그림31> 생크의 종류 (Primrose Peacock, Discovering old Buttons, p.69)

(9) 박스생크(box shank)

상자모양의 생크에 네개의 구멍이 나있는 형태로 유리나 셀룰로이드 플라스틱같이 틀에 넣어 만드는 재료의 단추에서 발견된다.(그림31-②)

(10) 변발생크(pigtail sh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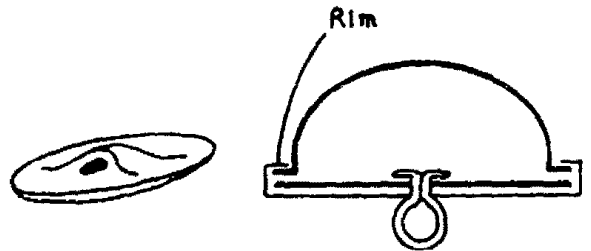
틀에 넣어 만든 단추에서 끝이 느슨한 것이 발견되는 고리생크를 말하는 것으로 단추제조과정의 부주의에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

(11) 장미꽃장식생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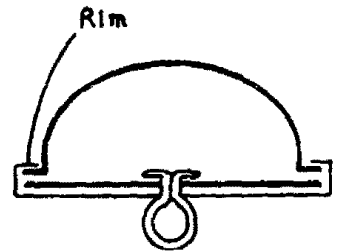
“거미의 뒷모양”이나 “발톱모양”의 생크로 모든 색유리단추에서 발견된다.(그림31-③)

(12) 셀프생크(self shank)

틀에 넣어 만들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단추에 사용한다.(그림32-①)



① 셀프생크



② 막대기형생크



③ U자생크

<그림32> 생크의 종류 (Primrose Peacock, Discovering old Buttons, p.70)

(13) 막대기형생크(staff type shank)

앞뒤 조각이 연결되어 분리된 장식을 가진 유니폼단추에 사용하는 것으로 앞면은 보통 반구형이다.(그림32-②)

(14) U자생크(u-shank)

U자 모양의 생크로 유리단추에 붙은 것으로 격쇠생크(staple shank)라 부르기도 한다.(그림32-③)

(15) 철사눈생크(wire eye shank)

백랍생크를 개선한 것으로 아주 희귀하다.

(16) V자생크

이것은 단추의 몸체에 공정이 끝난 후 구멍을 뚫는 것으로 V자 모양의 구멍을 2개나 4개 뚫는다. V자형 생크는 놋쇠·청동·합금에서 발견된다.

2. 단추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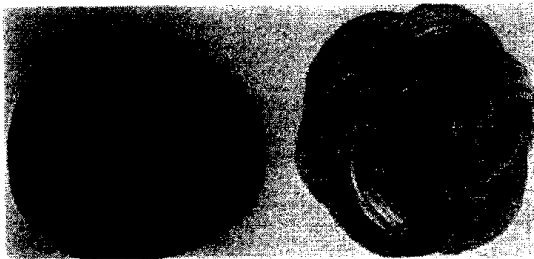
단추에 사용되는 재료는 매우 다양하며 각 재질의 특성에 따라 디자인되고 의복과도 조화된다. 따라서 단추의 재료는 우리의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재질에 따른 분류

(1) 식물성단추

가. 나무단추

장식적용도보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많이 쓰이며 다른 재료와 함께 장식하기도 한다. (그림33)



① 조각된 단추 ② 대나무 단추

<그림33> (피복문화협회편, 「복장대백과사전」, p.303

나. 식물상아단추

야자나무과에 속하는 tagua의 열매로 만든 단추

로 상아단추와 모양이 비슷하다. 주재배지는 남아프리카이다.(그림34)



<그림34> 식물상아 단추의 원료인 tagua 열매 (Compton's Encyclopedia and Fact-Index.2, p.371)

(2) 동물성 단추

가. 뿔단추

주로 사슴·소등의 뿔을 가지고 만들며 고대부터 사용되었다.

나. 뼈단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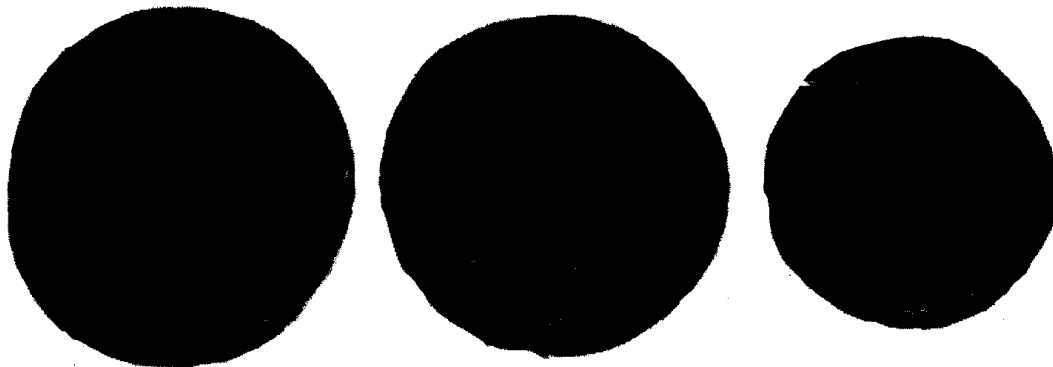
보통 소의 뼈를 가지고 만들며 속옷이나 바지 어린이옷 등의 실용적인 용도로 쓰인다.³⁵⁾

다. 상아단추

상아로 만들며 값이 비싸고 희귀하여 대중적이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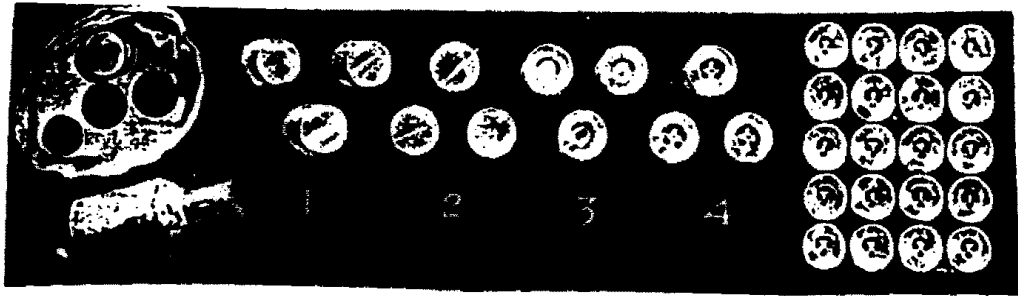
라. 가죽단추

자체의 광택과 색상이 아름다워서 단추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림35>



(그림35) 가죽단추 (피복문화협회편, 「복장대백과사전」, p.303.

35) The World Book Enyclopedia, op.cit, p.630.



〈그림36〉 조개단추의 제작과정
(Compton's Pictured Encyclopedia and Fact-Index, 2 p.317)

마. 조개단추

대부분 서츠나 파자마에 쓰이며 처음에는 바다조개만을 사용하였으나 1890년 미국의 John F. Boepple 이 미시시피강의 섬조개로 단추를 만들었다.³⁶⁾ (그림36)은 조개 단추의 제작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3) 금속단추

가. 놋쇠단추

17세기초의 것은 뼈로 만든 주형에 얇게 도금해서 만들었고, 18세기 이후 더욱 견고해졌다.

나. 합금단추

2개 이상의 금속을 혼합해서 만든 단추이다.

다. 금단추

신분이나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 달았던 장식적인 요소가 강한 단추이다.

라. 은단추

18세기 남자의 코트나 Breech 용으로 만들었다.

마. 도금단추

은이나 금으로 도금해서 사용했다.

바. 백랍단추

13세기에서 15세기 사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무겁고 둔한 형태의 단추이다.³⁷⁾

(4) 인조단추

가. 유리단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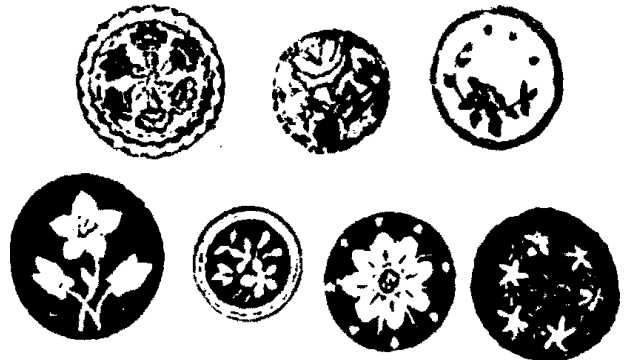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유롭게 만들수 있어서 1840년 부터 성행하였다.³⁸⁾

나. 도기단추

점토로 만들었고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하여 장식적 효과를 내었다.

다. 천단추

실로 짜거나 금속단추에 천을 씌워 만들었으며 수를 놓아 장식하기도 하였다. (그림37)



〈그림37〉 수장식 단추 (피복문화협회편, 「복장대백과사전」, p.314)

마. 종이단추

종이를 압축 시키거나 겹으로 부쳐 만들었다.

바. 합성수지단추

합성수지의 개발로 색상, 크기, 디자인 등이 매우 다양해졌으며 주로 기능적인 단추들이다.

2) 문양에 따른 분류

(1) 꽃무늬가 있는 단추

한송이만을 자세히 묘사하기도 한다. 자수나 도안·조각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38)

36)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op.cit, p.410.

37) 강두옥, "18·19세기 단추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5. p.46.

38)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op, cit, p.410.



〈그림38〉 꽃무늬 보석단추 (The World Book Encyclopeda, Vol.2. p.630)

(2) 동물문양이 있는 단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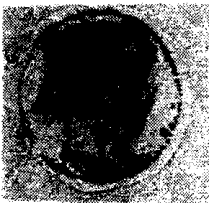
자연에서 생활하는 모든 동물을 주제로 디자인했다.(그림40)



〈그림39〉 동물무늬 단추 (The World Book Encyclopeda, 2. p.630)

(3) 인간의 모습이 그려진 단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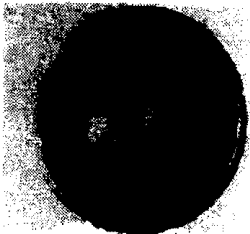
왕이나 유명인사들을 주로 묘사하는데 어린이의 모습이 그려진 단추도 있다. (그림40)



① Rameses II



② Mercury



③ Minerva and Jupiter ④ Goerge Washington



〈그림40〉 인간의 모습을 묘사한 단추 (Britannica Junior Encyclopeda, 3.p.421)

(4) 이야기를 문양으로 표현한 단추

성서·동화 등에 나오는 이야기를 단추 디자인에 묘사한 것으로 여러장면들이 그려져 있다. (그림 41)



〈그림41〉 ① 헨젤과 그레텔 ② 빨간모자 (Britannica Junior Encyclopeda, 3 p.421)

이외에도 단추의 문양은 과일이나 곤충, 자연을 그린것, 건축물, 배, 비행기, 스포츠등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 단추의 디자인에 반영이 된다.

3. 단추구멍의 형태와 종류

단추구멍은 단추와 함께 의복을 고정시키는 부속품으로서 14세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一자 단추구멍도 동양에서 들어온 것으로 뛰어난 기능성으로 인해 서양 남성복에 널리 적용되었다.³⁹⁾ 또한 단추구멍은 기능적인 용도 이외에도 단추와 함께 장식적인 용도로도 사용된다.

단추구멍의 형태와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단추구멍의 형태

(1) 가로형: 一자 단추구멍이라고도 부르며 블라우스·드레스 등과 하의에 주로 많이 쓰인다. (그림42-①)



① 가로형 ② 세로형 ③ 사선형

〈그림42〉 단추구멍의 형태 (田中干代, 「도해복식사전」, p.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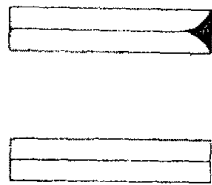
39) 정홍숙, 전개서, p.122.

(2) 세로형: 위에서 아래로 구멍을 낸 수직선형 태로 셔츠등의 상의에 주로 사용된다. (그림42-②)

(3) 사선형: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구멍을 낸 것으로 장식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림42-③)

2) 단추구멍의 종류

(1) Bound Buttonhole: 천이나 가죽등으로 가장자리를 처리한 단추구멍으로 바이어스천을 사용하고 둥근 테두리가 있는 것도 있다. 주로 부인복에 사용하며 입술 단추구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림43)



<그림43> Bound Buttonhole (피복문화협회편, 「복장대백과사전」 p.337)

(2) Worked Buttonhole: 기계나 손바느질로 버튼호울스티치를 이용해 처리한 단추구멍으로 막음이 한쪽만 되어 있는 것과 양쪽 모두 막음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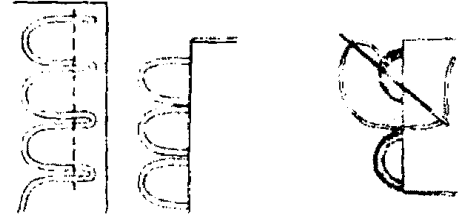
<그림44> Worked Buttonhole (피복문화협회편, 「복장대백과사전」 p.337)

(3) Tailred Worked Buttonhole: Worked Buttonhole 보다 더 견고하게 만드는 단추구멍으로 한쪽에 둥근 구멍이 있고 버튼호울 스티치로 처리되어 있다. 주로 단추가 크거나 남성복 상의, 코트같은 두꺼운 의복에 쓰인다. 비둘기눈 단추구멍이라고 부른다. (그림45)



<그림45> Tailred Worked Button hole (피복문화협회편, 「복장대백과사전」, p.337)

(4) Loop Buttonhole: 천이나 실로 루프를 만들어서 의복 가장자리에 다는 단추구멍으로 주로 장식단추와 함께 많이 쓰인다. (그림46)



<그림46> loop Buttonhole (田中干代 「도해복식사전」, p.663)

(5) Simulated Buttonhole: Buttonhole stitch로 처리된 장식적인 단추구멍

(6) Buttonhole Eyelet: Single-purl stitch로 처리된 단추구멍

IV. 복식에 있어 단추와 단추구멍의 역할

하나의 의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자인과 옷감·실·단추·지퍼등과 같은 재료가 필요하다.

그중에서 단추와 단추구멍은 의복의 트임을 처리하는 기능적인 역할뿐 아니라 복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장식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며, 어떤 특정단체나 소속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표시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단추와 단추구멍이 복식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능적인 역할

의복의 입체적 재단이 시도되면서 인체에 꼭 맞는 복식의 형태는 단추와 단추구멍의 기능적인 역할에 크게 호응하기 시작했다.

고대 튜닉형의 복식은 단추와 단추구멍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13세기 복식의 입체적 형태는 단추와 단추구멍의 기능성을 인정하였다.

(그림10)에 보이는 브르뵘웁은 단추와 단추구멍의 기능적인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장식적인 역할

단추와 단추구멍의 장식적인 역할은 16세기 르네상스시대를 거쳐 17·18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이 시대에는 금·은·루비·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기도 했으며 금·은사로 단추구멍의 가장자리를 장식하기도 했다.

또 필요이상의 많은 단추를 달았다. 현대에는 합성수지의 개발로 색상이나 디자인이 매우 다양해져서 많은 장식단추가 나오고 있다.

3. 상징적인 역할

단추는 디자인이나 재질에 의해 자신의 신분이나 권력·소속 등을 상징하는 역할도 한다.

18세기 이전에는 보석단추를 달아 자신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였으며 근대에는 유명인사의 얼굴이나 과학기술등의 발달을 기념하는 주제의 디자인이 보인다.

V. 결 론

단추와 단추구멍은 의복의 착용에 있어 인간의 체형때문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트임을 여며 고정해 주는 기능적 용도와 미적 효과를 높이는 장식적 용도로 사용되는 의복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단추의 기원은 동서를 막론하고 역사시대 이전부터이며 동물의 뼈나 금동으로 만들어진 단추를 고대의 유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복이 각 시대의 사회상이나 문화를 반영하듯이 단추와 단추구멍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발전되었으며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대의 단추는 이집트나 그리스, 페르시아 등지의 유물에서 볼수 있으며 단순한 형태로 기능적인 역할보다는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가치가 우선되었다.
2. 중세의 단추가 기능적 용도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3세기 이후의 일로 십자군 전쟁의 결과 동양의 문화가 전파되면서 단추와 단추구멍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14세기 이후 단추와 단추구멍은 장식적인 용도로서 뿐 아니라 기능적인 용도로써 사용되어졌다.
3. 근세에 들어와 단추의 사용은 더욱 증가되었으며

르네상스시대에는 남녀모두가 사용하였다.

17세기 역시 바로크의상의 화려함과 함께 단추는 장식품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18세기에 들어와 산업혁명으로 인해 단추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금속·상아단추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여자복에서도 단추의 사용이 확대되었다.

4. 19세기에는 단추제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가내수공업에 의존하던 단추가 기계에 의해 대량생산되기 시작했다. 또 산업의 발달로 재료면이나 염색 등에도 발전을 가져와 더욱 다양한 단추들이 제조되었다. 19세기는 단추가 장식적이고 기능적이며 상징적인 역할을 하였다.

20세기 이후 합성수지의 개발로 더욱 다양하고 기능적인 단추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2차세계대전 이후 단추는 장식적인 용도에서 기능적인 용도로 변화되었다.

또한 단추구멍은 단추와 함께 의복의 트임을 여며주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종류도 다양해져서 Bound Buttonhole, Worked Buttonhole, Tailred Buttonhole, Loop Buttonhole등이 있다.

단추의 형태는 자연을 단순히 묘사하거나 기하학적으로 만든 모양들이 있고 텃형태도 내부에 구멍이 있어 겉에서 보이는 것과 뒤에 shank가 부착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단추의 종류는 단추에 쓰인 재질에 따라 식물성, 동물성, 금속, 인조단추로 구분하였으며, 문양에 따라서는 꽃, 동물, 인간의 모습, 소설이나 동화, 성서 이야기로 분류하였다.

이와같이 단추와 단추구멍은 시대에 따라 의복과 함께 변화되어 왔으며 트임을 고정시키기 위한 기능적인 측면과 의복을 더욱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장식적인 측면, 착장자의 지위나 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두옥, "18, 19세기 단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5.
 김명숙, "서구의복의 트임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3.

「圓解西洋服飾史」, 서울:유신문화사, 1982.
 「東亞原色世界大百科事典」, 9권. 서울:동아출판사, 1983.
 백영자, 유효순, 「서양복식문화사」, 서울:경춘사, 1989.
 「봉제대백과사전」 5권. 서울:선진출판사, 1983.
 신상옥, 「서양복식사」, 서울:수학사, 1989.
 윤은미외2인, “단추에 대한 소고”, 가정. 제14호.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1966.
 이정옥, 「서양복식사」, 서울:학문사, 1981.
 이해영, “중세 말기 서양복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4.
 鄭興淑, 「服飾文化史」, 서울:교문사, 1981.
 추희경, “서구복식의 근대적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8.
 「學院世界大百科事典」 5권. 서울:학원출판공사, 1976.
 丹野郎, 「西洋服飾發達史」-고대. 중세편-. 동경:광생관, 소화53.
 丹野郎, 原田二郎, 「西洋服飾史」, 일본:의생활연구회, 1982.
 文化出版局 編, 「服飾事典」, 동경:문화출판국, 1979.
 石山彰, 「服飾事典」, 동경:タテイト社, 1977.
 田中千代, 「服飾事典」, 동경:동문서원, 1982.
 被服文化協會編, 「服裝大百科事典」-下-. 동경:문화출판국, 소화46.
 下中邦彦 編, 「世界大百科事典」-28-. 동경:平凡社, 1972.
 Art Treasures of the World, Hanlyn, London, 1981.
 Boucher Francois, 20000 years of Fashion. London:thames and Hudom, 1987.
 Britannica Junior Encyclopedia, Vol.3. Encyclopedia Britannica, 1989.
 Compton's Pictured Encyclopedia and Fact-Index, Vol.2. F.E.Compton and Company, 1975.
 Davenport Millia, The Book of Costume, Vol.1. Crown Publishers, Inc. N.Y., 1976.
 Encyclopedia America Vol.2. Americana Corporation, 1973.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Dover Publications, Inc., 1975.
 Kohler Carl, History of Costume. Dover Publications, Inc., 1963.
 Laver James, Costume and Fashion. London: Thames and Hudson, 1980
 Payne Blanche, History of Costume, N.Y. Harper and Row., 1970.
 Peacock Primrose, Discovering Old Buttons, Shire Publications Ltd, 1978.
 R.Turner Wilcox, The Mode in costume. N.Y and London:Charles Scribner's son, 1980.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Vol.2. Encyclopedia Britannica, 1980.
 The World book of Encyclopedia, Vol.2. Field Enterprise Educational Corporation, 1970.
 Verna Moulton, “Button” Encyclopedia Americana Vol.2. Americana Corporation, 1975.

ABSTRACT

A Study of the transitional Development of Buttons and Buttonholes

Ku Aelina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Clothing expresses people's desire of beauty most directly of all cultural inheritances, and it teach us how the human culture has changed and developed.

In this study researched the history of buttonholes which make the clothes more fuctional and beautiful, Buttons and Buttonholes is one of detailed elements they used as a fastener or as a decoration on clothing.

Buttons have been used since ancient times, in early times long before buttons were used as fasteners they had significat decorative and symbolic valu.

In ancient times, clothes fastened with pins,

brooches, fibular and ties.

In medieval Europe, it was not until the 13th century that they used the button in functional use, and then Chong Ryung-Ok was introduced from orient, and they became popular as fasteners on clothing during the 13th century when fitted clothes replaced loose garments.

Garments were laced together or fastened with buttons, until buttonholes were invented in the 13th century. But as early as the 14th century it appears that someone discovered that a loop slipped over a button, or button pushed through a slit in the cloth, would make a good clothes fastener. Many buttons made during the modern ages were convex medallions set in metal rims and decorated with partraits of famous men and women.

During the modern ages, buttons, with ligh-graphed pictures, covered with celluloid of glass were popular.

In the 19th century, the mass production by

machine made people use the button easily, and many differend material of button easily and many different material of button was made.

With the begining of the 20th century, the development of plastics led to various and functional buttons.

The type of buttonholes also became various, as bound buttonhole, Tailred buttonhole, Worked buttonhole, Loop buttonhole and so on.

The button has many forms which were imitated by nature, or made geometrically and the appearance of the button from behind is classified by what has holes and what has a shank, and I also classified the kinds of button by the quality of the material design and use.

Like this, with the passing of the time buttons and buttonholes have changed in appearance with the change of clothes, and they have standed for something meaningful as well as fixed the opening and made chothes more beautiful.